



54

용접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후각소실

성별	남	나이	40세	직종	용접 작업자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이○○(남, 40)은 1996년 S중공업 조선소에 입사하여 선체 블록 용접작업을 한 후 2003년 5월 D대학교병원에서 후각소실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이○○은 입사 후 블록 용접작업을 하다가, 1998년 1월 5일부터 산재요양이 시작된 2002년 5월 8일까지는 대부분 밀폐된 곳에서 2~4명이 함께 용접 및 가우징 작업을 하였다. 작업장 안에 1~2개의 자바라 호스를 설치하고 작업하지만 용접흠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고, 용접작업을 하는 블록 안에서 사상작업자가 같이 작업하기도 하였다 한다. 또한 자바라 호스도 설치할 수 없는 검사작업 중에도 동일 블록의 바로 옆에서 사상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다. 1996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흠은 노출기준을 월등히 초과하였으나 중금속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다. 이○○은 S중공업 조선소에 입사하기 이전에 약 8년 간 금형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군 복무를 마친 후 1988년 12월부터 S중공업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5년 10개월 간 선수미 블록 용접작업을 하였고, 1994년 11월부터는 D조선소의 협력업체들에서 총 1년 4개월 간 선박의 블록 탑재작업 및 선수미 블록 용접작업을 하였다.



3 의학적 소견

이○○은 L4-5 및 L5-S1 추간판탈출증으로 2002년 5월 8일부터 산재 요양 중이다. 2년 전부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시작하여 점점 심해졌는데, 코가 막히거나 콧물 등의 증상은 없었고 두부 손상이나 수술 등의 기왕력도 없었다. 2003년 4월 7일 D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실시한 후각역치검사에서는 4% Butanol에 양측 모두 반응이 없었고, 후각인지검사에서는 12종류 물질 중 처음에는 5종류, 두 번째는 4종류 물질만 맞춰 후각소실 소견이 나타났고 특진을 실시한 결과 뇌 자기공명영상 및 부비동 컴퓨터단층사진에서 점막 비후가 있는 만성 범부비동염 소견이 나타났으며, 진찰상 비강의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.

4 결 론

이○○은

- ① 양측성 후각소실로 진단되었는데,
 - ② 후각소실이 발생하기 약 12년 전부터 용접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용접흠에 노출되었으나, 카드뮴이나 크롬 등의 노출수준이 낮고, 유기용제 등은 직접 취급하지 않은 반면,
 - ③ 후각소실의 주요 원인인 만성 부비동염 소견이 뇌 자기공명영상 및 부비동 컴퓨터단층사진에서 확인되었으므로,
-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